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4월 13일 금요일 (음 2월 28일) 제20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세계에서 알아주는 전주식당 육성 지속

시, 미쉐린가이드 등재 목표
미식 가이드북 출간 등
전주의 맛 알리도록 지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시가 도전하는 전주식당을 전주의 맛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세계적인 전주식당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의 식당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계적인 미식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를 목표로 '세계적인 전주식당 육성사업'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음식창의도시 선정과 지속적인 해외 유명 언론매체 소개를 통해 전주음식에 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주의 유명 식당을 지원하고 육성해 미쉐린가이드와 같은 국내·외 유명 맛평가 가이드에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39여개 도전업소에는 식기와 테이블 보와 같은 테이블웨어 등 환경 개선 외에도, 메뉴관리, 동선, 친절서비스, 경영 등 각 업체가 가지고 있던 애로 사항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들이 조언해주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또,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선도시례를 직접 경험해 보는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시는 서비스와 주방, 메뉴, 인테리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집단인 자문단을 통해 각 분야별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쉐린 스타레스토랑과 유명

레스토랑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통해 노하우를 배우고 접목시켜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맛과 서비스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국내 유명 미식가이드 북에 전주의 도전하는 유명식당들이 소개될 수 있도록 전주 특별판 출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 세미나실에서 도전업소 39개 대표와 사업책임자인 이대희 전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전주식당 육성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전주 우수 음식점의 도전 발굴 확대 △전주 음식점의 운영컨설팅 및 후속지도 △미슐랭가이드 기능 업소 리스트업(빙구 포함) △국내 유명 미식가이드 북(블루리본 서베이) 전주판 발행 추진 △우수업체 벤치마킹 △언론마케팅 등 주요 사업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각 도전 식당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간 공급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의 시간도 진행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 식당들의 맛과 시설, 서비스가 개선돼 전주한식의 품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책임자인 이대희 전주대학교 교수는 "음식의 도시 전주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전주한식이 세계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靑 “김기식 해외출장, 선관위에 공식질의… 객관적 법적기준 필요”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실 해외출장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를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 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질의 내용과 관련해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

“19·20대 의원 무작위 조사… 16개 피감기관에 총 167건

김기식 도덕성 평균 이하인지 의문… 새 가치·기준 세워야”

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질의서를 발송한 배경

에 대해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인 잣대로만 들이밀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

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19·20대 국회 회기 당시 피감기관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갔다 온 사례조사를 한 결과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의 문제가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김 원장의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고자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20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살펴봤다”면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원장과 같은 개별 출장 사례와 관련해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국회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항공공사에서 두 번 등 적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 됐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 도덕적 감각이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며 “김기식 특정한 민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북디자인센터 문 열다

전북도의 디자인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디자인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전북디자인센터 개관식이 12일 익산시 왕궁면 금광길에서 열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와 정현을 익산시장, 디자인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이 개관식을 갖고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지원 중앙협의회' 출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2일 콘래드호텔에서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20개 노후 준비 관련 전문기관이 모여 '국민의 행복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중앙협의회' (이하 중앙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은 노후준비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무, 건강, 여가 등 각 기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16개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서비스 연계, 공동 홍보,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 발굴, 기관 간 정보교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중앙협의회 출범으로 국민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노후준비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필요하지만 몰랐던 서비스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노후준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호 기자

내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후원 불가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14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위 관련 제한·금지 사항 지방자치단체장은 4월 14일부터

도선관위, 지선 D-60 맞아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

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금지 사항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김진성 기자

제5회 한옥마을 품바 명인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시민과 함께 活民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활민)

정읍시의회
www.jcc.or.kr